

임인년 태사묘 및 시조 묘소, 낭중공 정알례 봉행

2022년 2월 3일(음력 정월 초3일) 오전 10시 안동시 태사길(북문동) 태사묘우(太師廟宇)에서 삼성(三姓)인 안동권씨(安東權氏), 안동김씨(安東金氏), 안동장씨(安東張氏)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인년(壬寅年) 정알례(正鵠禮)를 봉행(奉行)하였다.

최근 안동지방은 아침 기온이 평균 영하 10도를 오르내렸지만 이날은 영하 1도를 유지하여 정알례를 치르는데는 별 문제가 없었다.

주최 측은 요즘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됨에 따라 인원을 최대한 줄여 참석하도록 하였다. 예년 같으면 정알례 때는 삼성의 후손들이 80~90명 참석하였으나 이날은 30여 명만 참석하였다. 이날 권숙동 안동권씨 안동종친회장을 비롯하여 김휘동 전 안동시장 겸 안동김씨 안동화수회장, 권정창 태사묘관리위원회 위원장 겸 대종회 제례위원장, 김숙동 안동향교 전교, 권영길 전 경북도 복지건강 국장, 권석환 안동문화원장, 권오익 안동권씨 대종회 안동사무소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장수식 태사묘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의 집례(執禮)로 권숙동(安東權씨안동종친회장), 김효진(전 태사묘관리위원회 위원장), 장기용(전 태사묘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삼성의 세 현관(獻官)이 관복(冠服)으로 각 아입고 다른 후손들은 유건(儒巾)과 도포(道袍)를 입고 태사묘우로 들어갔다. 현관들은 재유사의 도움을 받아 각각 자기 시조(始祖) 위파 앞에서 분향(焚香) 헌작(獻爵)하고 밖으로 나와 후손 모두가 함께 재배(再拜)하였다.



태사묘 송보당 앞에서 삼성의 후손들이 기념촬영



시조묘소 앞에서 정알례 마치고 기념촬영

정알례가 끝나자 후손 참석자들은 숭보당(崇報堂) 앞 잔디밭에서 동, 서로 나누어 서로 마주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상읍례(相揖禮)를 한 후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나서 정알례를 마쳤다.

안동권씨 일족(一族)은 권숙동 안동종친회장, 권주연 파종회장협의회 회장 겸 부호장공파종회장, 권정창 대종회 제례위원장, 권영길 전 경북도 복지건강 국장, 권석환 안동문화원장 등 10명은 권오익 대종회 안동사무소 사무국장이 미리 준비한 간단한 주과포(酒果脯)를 가지고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능골로 이동하였다.

시조 묘소에는 권석환, 권영길, 평창공묘소에는 권정창, 낭중공 단소에는 권주연이 각각 분향 헌작하고 재배한 후 정알례를 마쳤다.

정알례를 마친 일족들은 안동시 평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청운한정식식당'에서 떡국을 먹으면서 환담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헤어졌다. 이날 점심 식사대는 새로 선출된 권석환 안동문화원장이 계산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보도부장 권영간〉

사를 맡은 권주연 회장은 두루마기 한복을, 권영문 前 제례위원장은 유건(儒巾)과 도포(道袍)로 갈아 입고 다른 임원들은 평상복(平常服)을 입은 채 파조 위파를 향하여 재배(再拜)를 하는 등 엄숙하게 정알례를 봉행한 후 서로 마주 보면서 상읍례(相揖禮)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권주연 도유사는 인사말에서 "임인년을 맞이하여 여러 임원들이 원하시는 일들이 잘 풀리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하고 시내 송현동에 있는 파종회 소유 밭과 일원정에 관하여 소신을 피력하기도 했다. 정알례를 끝낸 족친들은 일원정 정자 앞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였다.

입춘(立春)을 하루 앞둔 이날 낮 평균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고 바람도 많이 불어 겨울의 강추위를 실감케 하였다.

정알례를 마친 임원들은 시내 축제장길(운흥동)에 위치하고 있는 '낙동강'식당으로 이동,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불고기를 곁들여 점심을 먹은 후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간〉

2022 임인년 부호장공파 파조 정알례 봉행



부호장공파종회(副戶長公派宗會: 회장 권주연)는 2월 3일(음력 1월 초3일) 오전 11시 안동시 어가골길(태화동) 일원정(一源亭)에서 2022 임인년(壬寅年) 파조(派祖) 정알례(正鵠禮)를 봉행(奉行)하였다.

올 들어 아홉 번째로 맞이하는 파조 정

알례는 권주연 도유사(都有司: 부호장공파종회장)를 비롯하여 권영건 고문, 권오균, 권정수 부회장, 권오중 제례위원장, 권영문 전(前) 제례위원장, 권오명 감사, 권대수 운영위원, 권기영 별유사, 권기윤 사무국장 등 10명이 참석하였다. 올해 도유

를 맡은 권주연 회장은 두루마기 한복

을, 권영문 前 제례위원장은 유건(儒巾)

과 도포(道袍)로 갈아 입고 다른 임원들은

평상복(平常服)을 입은 채 파조 위파를

향하여 재배(再拜)를 하는 등 엄숙하게 정알례

를 봉행한 후 서로 마주 보면서 상읍례(相

揖禮)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권주연 도유

사는 인사말에서 "임인년을 맞이하여 여

러 임원들이 원하시는 일들이 잘 풀리시기

를 기원한다"고 말하고 시내 송현동에

있는 파종회 소유 밭과 일원정에 관하여 소

신을 피력하기도 했다. 정알례를 끝낸 족

친들은 일원정 정자 앞에서 단체로 기념촬

영을 하였다.

임원들은 6·25전쟁을 겪은 한국 기업

이 전쟁 후 30여년 만에 이렇게 발전한

지혜로운 국민에게 기대한다

세계에서 최빈곤 국가에서 6.25전후 반세기 만에 선진국에 오른 한국은 분명히 지혜로운 현재적인 소질을 가진 국민의 나라이다. 석유 한 방울을 나지 않는 빈곤의 국가에서 조선,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세계 6위의 경제국가로 도약하였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이런 역사가 없다.

지난해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세계 주요 언론들은 앞다투어 한국의 영화 미나리와 기생충, 자동차, 골프, 김치 등의 기사와 칼럼을 보도했다. 영화 미나리는 제78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하였고, 기생충은 2019년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고, 2020년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각종 상을 휩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진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치와 언론이다. 공영방송에서 진행하는 아나운서는 뒷골목에서 할 소리를 제멋대로 지껄이고 공인 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은 그런 저질 방송에 출연하고 싶어 안달이 난 듯하다.

그런가 하면 중앙지나 지방지까지 편가르기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어 독자들과 시청자들의 분통을 자아내고 있다.

며칠 있으면 국운을 좌우할 대통령 선거에서도 헛된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해서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고 했던가? 사기꾼 옆에 벌붙은 사기꾼의 벌언 등이 이를 증명한다. 새마을운동으로 시작해서 농촌을 발전시키고 경제 부흥을 일으킨 선각자를 펜鞠하는가 하면 그런 인간을 철학자라고 일컫는 자들이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 세상에 믿지 못할 게 세 가지가 있다. 즉 여론조사와 통계, 거짓말하는 정



권영익 대종회 수석부회장

치인 그리고 사이비 언론이다. 그럼에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 믿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여론에 휩싸이지 않으며 아예 말하지 않거나 여론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있다.

한국 사회의 여론조사는 자기 편들끼리 조작하는 수준의 통계일 뿐이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지혜로운 시민들은 각각의 여론과 통계의 조작과정까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한다.



권대봉 중부대학교 총장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새롭게 견인할 새로운 대통령을 한달 뒤인 3월 9일에 뽑게 되었다. 국가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날이다. 한국 안에서는 "헬조선"이라며 한국을 펜鞠하는 자들도 있지만, 한국 밖에서는 한국 경제와 한국 문화를 무척 부러워한다.

미국 대학에서 강의할 때 어떤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혹시 한국인인가"라고 물었다. 그렇다고 답하자 "18세에 한국의 6·25전쟁에 참전하여 서울을 영등포에 주둔했는데, 권 교수는 그때 어디에서 무엇을 했나"라고 물었다. 전쟁 중에 태어났다고 답하자 "58세에 제너럴모터스를 퇴직하고 석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이다. 내가 참전했던 당시에 태어난 한국인 교수로부터 강의를 듣게 되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그 참전용사의 머릿속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만 가득할 것 같아서, 그다음 주에 필자가 다녔던 기업의 홍보 비디오를 보여주었다. 그 비디오에는 시멘트, 중공업, 정유, 제지회사 등의 공장시설 장면과 건설, 해운, 보험, 증권, 정보통신, 종합상사 등이 세계 각국에서 비즈니스하는 모습, 언론재단과 교육기관을 통해 사회공헌하는 장면들이 있었다. 필자가 출연한 화면에서는 환호성이 터졌다.

학생들은 6·25전쟁을 겪은 한국 기업

이 전쟁 후 30여년 만에 이렇게 발전한

데 놀랐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 도

대체 대한민국 성장동력이 뭐냐고 물었

다. 여러분이 직접 조사해서 다음 주에

공유하자고 답했다. 그다음 주에 학생들

의 활발한 토론이 있었는데, 출신 대륙

별로 관심이 약간씩 달랐다. 대부분 자

국에 절실히 필요한 한국의 강점을 적

시했다.

첫째, 아세안계 학생들은 한국 발전의 비전을 가진 국가지도자가 그 비전을 국

민과 잘 공유했으며, 공무원들이 그 비전

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덕분이라고 주

장했다. 둘째, 아프리카계 학생들은 뛰어

난 국가지도자를 만나도 국민이 노력하

지 않으면 국가가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하면서 새마을운동을 실천한 한

국 국민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셋째, 미국

계 학생들은 한국인 부모들의 교육열과

학생들의 학습열 그리고 한국 교육자들

이 국가건설자로서 사명을 실천한 덕분

이라고 주장했다. 넷째, 유럽계 학생들은

한국 기업인들의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

덕분이라고 하면서 세계시장에서 활약하

는 한국 기업들을 예로 들었다. 다섯째, 남

미계 학생들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도입한 정치·경제 제도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과 다른 체제

를 갖춘 북한과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토대는 국가안보

이 출처: 파이낸셜 뉴스 2022년 2월 9일

fn광장

안동권씨 '종보 보내기 운동' 전개

안동권씨 종보는 안동권문의 정신문화를 함양하는 역사적인 자료로 과거, 현재, 미래를 등대와 같이 비칠 것입니다. 대종회에서는 이 소중한 종보를 100만 족친 여러분께서 구독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방안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종보 구독자 수는 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종보를 전국적으로 확산·보급시키기 위해 '종보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오니 '종보 보내기 운동 기금'과 '받는 사람 주소'를 대종회로 보내주시면 받은 즉시 전국 방방곡곡 안동권문의 족친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만 송금할 경우 대종회에서 대상자 선정)

이 운동은 故 권태강 대종회 고문(전 검교공파회장)께서 별세하시기 직전에 제안하시고 종보 보내기 운동 기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하셨습니다. 대종회에서는 故 권태강 고문의 유지를 받들어 종보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오니 100만 족친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3부까지는 부수당 30,000원. 5부부터는 부수당 20,000원(예: 10부 20만원, 50부 100만원)

▶ 입금 계좌번호 : 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농협 317-0009-7471-41, 국민은행 033237-04-006941

▶ 연락처: 안동권씨 대종회 사무처 02-2695-2483

안동권씨 대종회